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어린이·청소년) 분야 우수작품제작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어린이·청소년) 우수작품 제작지원
- 실연심사 일정 및 장소 : 2016. 6.17(금) 10:00~19:00, 대학로예술극장 3관
- 지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 6.17(금) 19:00, 대학로예술극장 3관 회의실

###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분야(어린이·청소년)>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어린이·청소년)분야 47편의 작품을 두고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2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총 세 차례에 이르는 심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행해졌다.

- 1차 심의 : 지원신청서와 대본검토, 최종 6개 작품 선정
- 2차 심의 : 작품 계획 프레젠테이션과 관계자 질의응답
- 3차 심의 : 6개 작품의 시범공연(20분) 관람, 작가와 연출자 인터뷰

심의기준은 작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30%), 작품의 예술성(50%), 작품의 파급효과(20%) 등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심의를 2차 심의 시, 각 단체가 발표하였던 작품계획이 시범공연을 통해 일부라도 입증되는지에 집중하였다. 6개의 시범공연이 각기 고유한 특성으로 다양성 측면의 의미가 있어 심의위원 간 의견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창작산실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일반 상업적 세련미보다는 관객친화적이면서도 새로운 예술적 시도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에 힘을 실어주자는 데에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수근화가의 일생을 그의 그림과 영상을 접목하여 예술화하고자 하는 아트브릿지의 <쪽마루 아틀리에>와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동화의 주인공들인 춘향, 심청, 팔귀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의 텍스트로 풀어내는 플레이그룹 잼잼의 <하늘로 간 청춘팔>을 최종 선정하였다.

나머지 4개 작품에도 드라마가 강하거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등 작품마다 개성이 있어 어린이·청소년 대상 작품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단, 극 전반을 이끌어낼 이야기와 구성이 빈약하고, 명확한 주제나 주요 타깃이 모호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작품으로서의 당위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첫 심의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위원들의 주요 의견을 되짚어 신청 단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공연의 목적이 교육에도 있겠지만, 이점만을 강조하다보면 연극적 요소,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 작품의 흥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대 표현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퍼포먼스를 강조하다보면 드라마투르그가 너무 약해진다거나, 영상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면 지루한 교육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표현법, 장치를 찾기를 바란다.’

향후 어린이·청소년 대상 작품 관련 워크숍, 전문 작가나 연출가 초청 강좌 등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창작산실(연극, 어린이·청소년) 지원사업이 도전적이고 참신한 기획이 실제 공연으로 실현되는 ‘산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어린이·청소년)분야 심의위원 일동